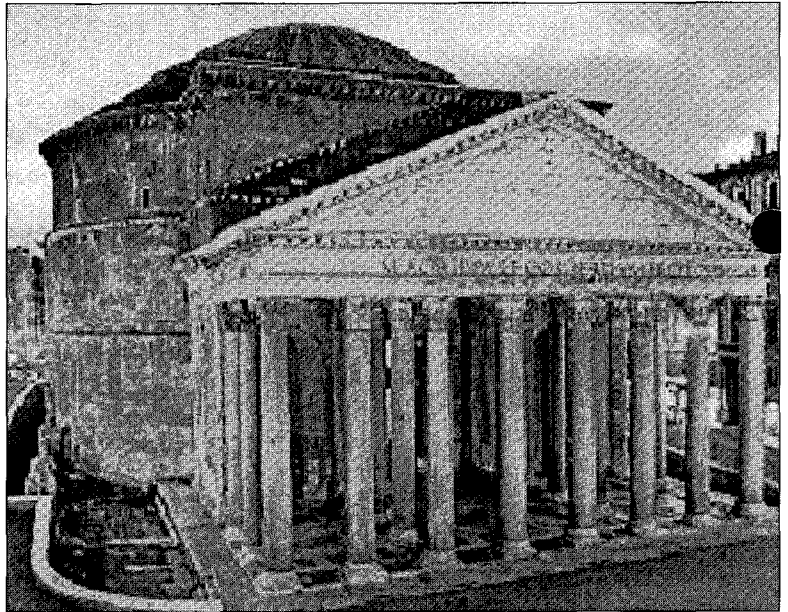


# 창의와 모방은 사촌이다.

“창의는 모방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박진준 차장  
삼성전자주식회사  
메모리 사업부 지적자산팀



(최초의 돔 건축물 판테온)

**창** 의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인가? 세계적인 건축 회화  
발명특허 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  
어서 걸작품이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은 ‘창의와 모방은 사촌간이  
다’ 는 답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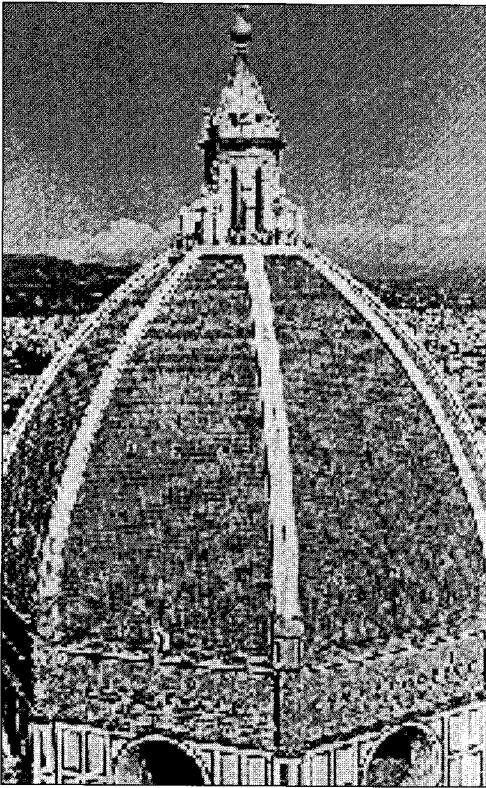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이미지  
(사진)를 통해서 보여 주겠다.

이탈리아 피렌체 제일의 교회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는 중세기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건축했  
다. 둥근 지붕(돔)을 어떻게 설계할까 고민하다 판  
테온을 비롯한 로마시대 건물에서 힌트를 얻어 완  
성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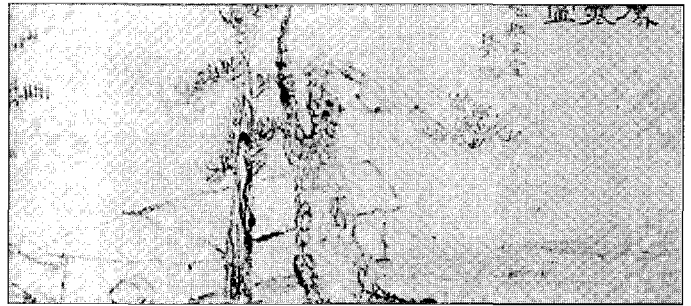
로마시대 판테온의 돔형식에서 수준 높은 중세  
기 돔 건물로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  
다.

추사 완당이 제자인 이상적의 변함없는 사제간  
의 정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려준 세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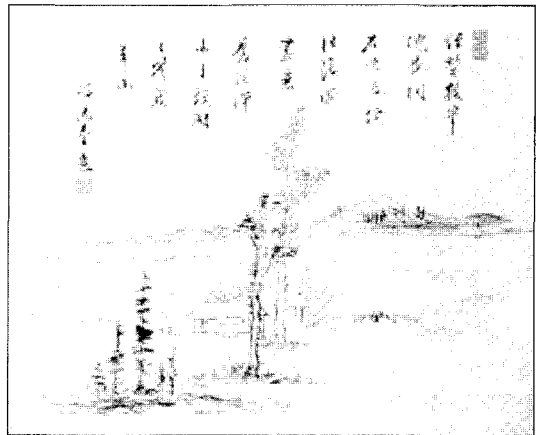
세한도는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평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추사 완당의 세한도)



(소치 허련의 산수도)

되고 있다.

이러한 세한도를 보고 제자인 소치가 '완당의 필의를 본받았다.' 라고 하면서 방작한 산수도다.

대가의 그림을 평한다는 것은 무례한 것이지만 추사는 자연을 모방한 것이요,

소치는 추사의 필의를 본받았다고 자신이 시인했듯이 추사 세한도의 여운이 소치의 화폭 전체를 누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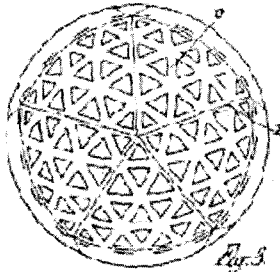
골프공에 양력을 많이 생기게 하여 더 멀리 나르게 하기 위해 표면에 딩플(dimple)을 넣기 위한 발명특허들이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정교하고 많은 딩플을 넣기 위해서 모양 간격 등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건축이나 회화 발명 기술을 보면 그 발전의 축에는 어떤 샘플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창의 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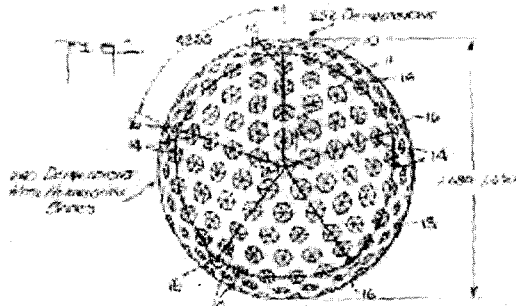
**기존의 비슷한 것부터 모방하여  
일정한 기술력을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 잉태된다.**

377,354 COMPLETE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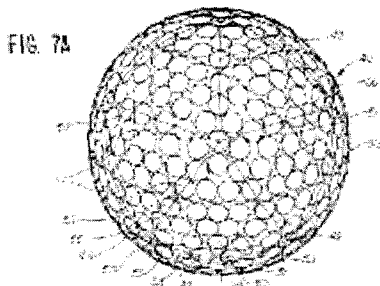
(1931년 출원)

U.S. Patent May 23, 1971 Sheet 1 of 2 4,890,716



(1971년 출원)

U.S. Patent Dec. 24, 1982 Sheet 2 of 11 4,560,168



(1984년 출원)

현대 사회의 기술혁명을 가지고온 트랜지스터 발명은 미국이 했지만 그것을 응용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일본의 Sony가 해냈다.

이동통신의 기본특허는 미국 퀄컴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응용한 핸드폰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더욱 발전시키고 이끌고 있다.

창의력이란 기존의 교육 경험 등을 분해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기존의 아무런 바탕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창의와 모방은 사촌간이다.

무언가를 발명하려면 기존의 특허나 논문 교과서적인 기술을 찾아 새롭게 응용 발상하면 된다.

창의는 모방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의 비슷한 것부터 모방하여 일정한 기술력을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 잉태된다.

발명의 모티브 또한 기존 물건의 문제점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다. 창의와 모방은 사촌간이다.

발특2003/11

생활속의 작은발명 우리들의 밝은미래